

# '녹색도시' 순천 가꾸기 본격화

순천시가 오는 2010년까지 도심에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순천시는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푸른 도시로 가꾸어가기 위해 2010년까지 공공분야 130만 그루, 민간분야 170만 그루 등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 각종 공원조성 사업과 함께 도심 녹화를 위한 담장 허물기·가로수 식재·도시 숲 조성사업 등을 펼쳐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市, 2010년까지 1가정 1그루 등 300만그루 식재

옛 범원부지는 담장 허물어 학교숲으로 조성

사업계획에 따르면 충효로(오병원~까르푸 구간) 완충지대는 시민들이 각종 기념일을 맞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념식수 구간으로 운영하고, 우석로(순천교~청암대) 일부 구간은 순천시를 대표하는 가로수 터널 길로 조성된다. 도심내 자투리땅과 도로변 공한지는 도시숲으로 조성하고, 옛 범원부

지는 담장을 허물어 학교숲으로 가꿀 계획이다.

또한 민간분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 '300만 그루 나무심기 범시민협의회'(상임회장 김준선)를 구성하고 지난달 말 조례동 야산에서 식목행사를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범시민협의회는 올해 한가정 한그

루 나무심기 운동과 아파트 단지별 나무심기 사업, 주택단지나 생활권 주변 녹화 사업 등을 실시, 4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 보다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에서 사업을 주도하다 보면 민간참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인식 전환없이 관 주도만 나무만 많이 심는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은행원들도 여수엑스포 유치 지원

광주은행 여수지점 직원들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며 빨간색 홍보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고 있다. 빨강색 티셔츠 앞면과 뒷면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합니다'라는 문구를 새겼으며 머플러로 한껏 멋을 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꽃피는 동네 만들기 동사무소가 나섰다

일선 동사무소가 주민들과 함께 '꽃 피는 동네, 깨끗한 거리'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 서강동사무소는 최근 도심권 중심상가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깨끗한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꽃길을 만들었다. (사진)

서강동사무소 전 직원들과 통장단, 새마을부녀회원들은 편지 꽃 화분을 도로변과 쓰레

여수 서강동사무소

편지 등 자투리땅에 심어

기 무단투기지역에 설치했다. 또 동네 자투리땅 1천여평에 도 철쭉과 동백나무를 심어 제철마다 활짝 핀 꽃들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꽃길가꾸기가 펼쳐지자 주민들의 동참이 늘고 있다. 도로변 불법투기도 사라지고 상점이나 주택가 등에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나 적치물들도 자취를 감췄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여순사건 집단 매장지 훼손 위기

서면 구량실재,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부지 편입

순천시민연대 "유골 발굴전까지 공사 중단요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여순사건 진상 조사가 들어간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여순사건 집단 매장 추정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순사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순천시민연대(이하 순천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순천시 서면 구량실재 인근 도로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 주요 핵심지이자 매장 추정지

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돼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유골 발굴 전까지 매장지 주변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량실재에서는 여순사건과 한국전쟁 개전 초기 두 차례에 걸쳐 150명에서 200여명의 지역민이 집단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지역에 대한 도로 공사는 뒤늦게 부지 편입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의 요청으로 잠시 중단된 상태다.

순천시민연대는 이날 구량실재 매장지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과거사위가 시급히 유골 발굴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행정적인 협조와 함께 유골을 안장할 수 있는 묘역 제공을 순천시에 요청했다.

한편 과거사위원회는 여순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 위원회에 접수된 300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지역은 순천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례 82건, 여수 45건, 보성 25건, 광양 13건, 고흥 9건, 함양과 화순 각각 4건 등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여수시청 현관 백남준 작품 보셨나요

'나는 비트겐슈타인...' 전시

지난해 타계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씨 작품이 여수에 전시되고 있다. 장소는 여수시청 현관 로비, 입구 왼쪽 벽면에 설치된 작품은 'I Never Read Wittgenstein' ('나는 비트겐슈타인을 읽은 적이 없다')로 백씨의 1998년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60년대 이후 미술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읽기를 조롱하듯, 비트겐슈타인 대신에 텔레비전 방송 모니터가 더 영감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작품은 텔레비전 방송이 정



지됐을 때 화면에 뜨는 다양한 색상으로 이뤄진 형상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모티브가 됐다. 4개의 텔레비전 모니터가 벽면에

수직으로 칠한 11가지 색상(흰색, 녹색, 빨강, 황색 등)을 바탕으로 설치돼 비슷한 색상판들을 각각 투사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포스코, 맞춤형 기술지원 해줍니다

광양지역 20개 중소기업 '테크노파트너십' 협약

포스코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테크노파트너십'을 광양지역에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문인력과 기술,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업체들의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광양제철소 기술연구소에서는 이성용 광양시장과 정준양 포스코 사장, 류경렬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 등 관계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테크노파트너십'을 광양지역에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문인력과 기술,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업체들의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데 협약을 맺은 20개 업체는 최고 수준의 박사급 전문인력으로부터 생산공정이나 제품의 기술적 애로 사항에 대한 진단, 자문, 교육은 물론 시험, 연구설비의 이용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을 무상으로 받게 된다. 테크노파트너십 제도는 중소기업

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포스코 경영층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등 장기적으로 포스코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포항지역 '테크노파트너십' 시범 업체 37개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57개사가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받게 됐으며 전남 테크노파크가 기술지원단 일원으로 동참한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 '오동도 아카데미' 성료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가 지난 4일과 6일 여수시 화양면의 한 민간연수원에서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동도(吾·動·道)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사진)

'오동도(吾·動·道)'의 '나 오(吾)'는 나와 우리라는 공동체를 표현하고, '움직일 동(動)'은 사람 또는 사물을 변화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길 도(道)'는 도리나 이치에 맞는 길을 나타낸 것이다.

여수해경은 앞으로도 해양경찰관의 고유한 조직문화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수=김성훈기자 kangsw@

##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시작

광양시 12월까지

광양시가 오는 12월 까지 노인 돌보미바우처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자로 전국국가 평균소득 이하인 자가 치매·중풍, 기타 중증노년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서비스이용대상자

가 월 3만6천원을 부담해 한달 27시간의 목욕 등 봉사활동과 외출동행,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광양시는 지난달 29일 광양자활우견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고, 지난 5일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사항을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光 州 日 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무안 452-8535	나주시 332-5544 나주군 332-7764
광양 792-8111	해남 534-5151	화순 392-4423
보성 853-9700	완도 554-6677	장성 392-7000
순천 746-8111	영광 351-0055	담양 383-8111
고흥 833-9900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녹동 842-2121	진도 543-0100	함평 863-8822
구례 783-8111	강진 433-8355	광천 944-0444
곡성 362-8111	함평 324-8111	고흥 564-1919
		순창 653-6155

**(株) 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 조명 되고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초대졸 커플매니저 0명 모집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호남지역총괄 (株)행복출발 (062) 527-3388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마를닷컴 >go 을 치세요

##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품질은 100% 가격은 80%

◆ 배터리닥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놀라운가요?

배터리 성능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충전 불량이나 수명감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판에 생긴 황산염 때문입니다. 배터리 닥터는 프로뱃(Probat)과 프로차지(Procharge)라는 최첨단 과학으로 황산염을 제거하고 생수를 억제함으로써 폐배터리를 새것과 동일한 성능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

◆ 적용범위

자동차 및 물류 배송센터 ▶

◆ 배터리 닥터, 그럼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버스, 택시, 트럭, 골프카트, 지게차, 견인차, 청소차, 운반차, 공항 및 선박, 물류센터, 자동창고, 백화점등 전동경비,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 교체비용이 드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불황기에 배터리 값만 아껴도 회사 살림이 확 됩니다. 지금 배터리닥터를 만나 보십시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껴 드리겠습니다.

◆ 주요실적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탕정공장), 한국 BASF, 호남석유화학 전동지게차 현장투입의 108개 업체 현장투입 기동중

bd (주)배터리닥터 BATTERY DOCTOR www.batterydoctor.com

총판 모집 전남·전북

상담전화 02)3664-1066